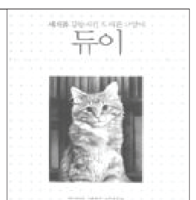
북스

Books

고양이가 안겨준 기적같은 사랑의 힘

듀이

비키 마이런 등 지음·배유정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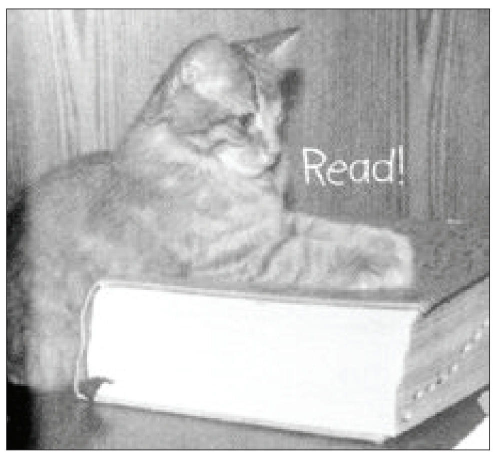


흔히 우리는 애완동물을 보살펴줘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야생을 잃어버린 동물이 인간 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를 챙기고, 때맞춰 동물병원을 찾아 예방접종도 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애완동물에게 받았던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 스펜서시 공공도서관 비키 마이런 관장과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저자 브렛 위터가 공동으로 낸 신간 '듀이'는 작은 고양이가 인간에게 안겨준 감동과 위로에 대한 기록이다.

30대 초반에 싱글맘이 된 마이런은 지난 1988년 어느 추운 겨울날 도서관 책 반납함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발견한다. 더러운 회색 고양이는 목욕 후 아름다운 긴 털을 가진 오렌지색 줄무늬 고양이로 탈바꿈했고, 이내 도서관 직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시작한다.

또 도서분류법인 '듀이 십진분류법'에서 이름을 따 '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듀이는 도서관을 찾는 수많은 사람에게 작지만 따뜻한 기쁨을 선사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보내러 들렀던 노인들에겐 무릎에 앉아 재롱을 떠는 친구가 됐고, 실직하고서 일자리를 찾으러 도서관을 찾은 남성에겐 웃음을 되찾아주었다. 또 무기력했던 장애 소녀에겐 활력을 불어넣었고 온종일 일해야만 하는 부모들이 맡겨놓은 아이들의 좋은 친구였다. 듀이는 점차 스펜서 마을과 스펜서 도서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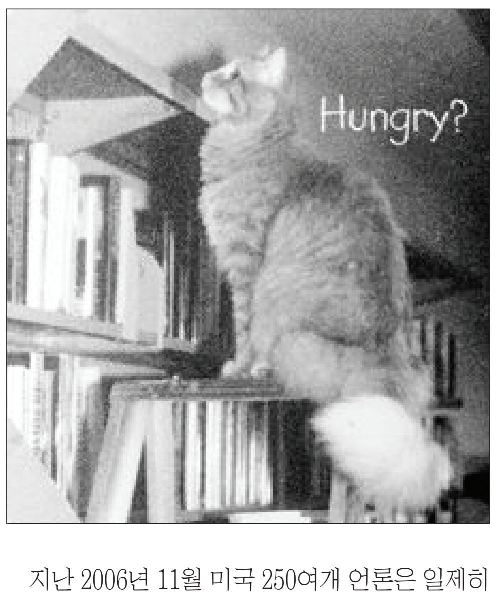
시련도 있었다. 아이들의 알레르기를 걱정한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아이들이 자주 찾는 도서관에서 고양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고양이를 키우는 대가로 자신은 암소를 몰고 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시민도 있었다. 마이런은 시장과 도서관 운영위원들을 설득했고, 의사를 찾아 듀이가 전혀 위험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듀이는 서서히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갔다. 아이의 알레르기를 걱정하던 부모는 도서관을 찾아 "우리 아이가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는지 미처 몰랐다"는 고백을 털어놓기도 했다.

듀이의 위로가 사람들 사이의 벽을 서서히 무너뜨렸던 것이다. 듀이는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가장 큰 위로를 받은 것은 마이런 자신이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의 이혼, 자궁적출수술과 유방암 수술, 사춘기 딸과의 갈등 등 힘겨운 삶을 살던 마이런은 듀이와 교감을 나누며 희망을 되찾아 갔다.

경제불황으로 해고된 노동자와 일거리를 잃은 농부들이 속출했던 우울한 분위기의 스펜서 마을 또한 듀이가 온 뒤 밝아지기 시작했고, 1994년 월마트가 들어온 이후 근방의 중심지로 발전해 갔다.



지난 2006년 11월 미국 250여개 언론은 일제히 듀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기사를 실었고 듀이를 애도하는 이메일만 600여 통이 쏟아졌다. 정작 보살핌과 위로를 받은 것은 버려진 고양이가 아니라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듀이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기를 겪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도서관 곳곳을 돌아다니며 재롱을 피우던 고양이는 동물 이전의 인간의 반려자였음을 이 책은 담담하게 전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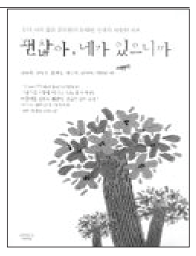
〈갤리온·1만1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젊은 문인들의 유쾌하고 따뜻한 희망가

괜찮아, 네가 있으니까

김연수·안도현 등 지음



경제난에, 흉흉한 세상사에 사람들은 희망 대신 절망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일까.

우리 시대 젊은 문인들이 유쾌하고 따뜻한 언어로 희망가를 전하는 산문집 '괜찮아, 네가 있으니까'가 나왔다.

박완서·이해인·김용택·장영희·최재천·정호승·윤구병 등 우리 시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어른들이 전했던 따뜻한 위로의 글인 '괜찮아, 살아 있으니까'에 이은 두번째 메시지다.

소설가 김연수는 미국 버클리에 머물던 시절, 매일 만나는 50대 초반의 흑인 홈리스로부터 이야기를 끌어왔다. 언제나 "어이, 친구 어떠신가' 라는 말이나 건네며 무위도식하는 그를 보며 반감을 느끼다 문득 "응, 잘 놀고 있어"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받은 이야기다.

안도현은 어린 시절 먹던 갱죽 등 음식을 소재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장통 아이'였던 이명랑(소설가)은 초등학교 시절의 아픈 추억이 오히려 힘들었던 청춘의 힘이 되었다고 전한다.

또 소설가 공선옥은 휴대폰, 신용카드, 자가용이 없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세 가지 물건이 자신에게 필요한 날들이 영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유쾌한 글쓰기 작가 박민규는 '푸를 청, 봄 춘'이라는 글로 응원을 보낸다.

몇몇 작가들의 글은 성의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글이 따뜻함을 전해준다.

〈마음의 숲·1만9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재미'로 읽는 100권 '고전읽기의 즐거움'

미 워싱턴포스트지 서평 전문 기자인 마이클 더다가 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은 고전 100여권을 오직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 소개한다.

총 11부 88장으로 키케로에서 애거사 크리스티까지 서양의 대표적인 작가 90여명의 대표작을 골라 저자의 생애와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했다.

저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전들이 현대 독자들에게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재미'에 있다며 고전의 선입관 때문에 고전 읽기의 묘미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을유문화사·1만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새책

▲위기 그리고 그 이후=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과 파급 과정, 각국 정부간 논쟁과 결정을 분석하고 위기 해결책으로 '하이퍼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 위기의 근원을 '시장과 법치성의 불균형'으로 지목했다. 〈위즈덤하우스·1만2천원〉

▲홍크!=국민연금공단 인력개발(HRD) 전문강사 안상현씨가 쓴 자기계발서다. 기러기떼의 비행을 보고 최우선 목표를 향해 모두 협력하고 격려하는 팀 또는 조직의 모델을 발견하여 제시하고 있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위협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리더십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경향미디어· 1만2천500원〉

▲건축의 이론과 역사=현대 건축 이론과 비평 분야에서 가장 깊이 있는 연구자인 만프레도 타푸리의 저서로 유럽의 건축 사상과 이론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 1968년에 나온 책으로 건축역사학을 탐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동녘·2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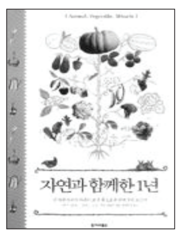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한국인들을 가장 강하게 결속하는 이데올로기적 규정력인 단일민족의식은 왜 생겨났으며,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에 끼친 공과는 무엇인가. 재미 한인 사회학자 신기욱씨가 한국인의 단일민족의식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역사사회학적,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뤘다. 〈창비·9천원〉

▲희망편지=지난해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돼 독자를 감동시킨 '희망편지'를 단행본으로 엮은 책이다. 우리 삶에는 늘 희로애락이 교차한다.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쓰디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에 벅차 아름다운 날들을 보내기도 한다. 〈문이당· 1만원〉

▲그대는 적인가 동지인가=역사학자 이이화의 한국인이야기. 정치적 길을 달리해 숙적이 된 김부식과 정지상, 열혈청년과 출세주의자로 씻을 수 없는 앙금을 남긴 정약용과 서용보 등 역사 속에 다른 족적을 남긴 두 인물들의 전기를 대비해 추적한다. 〈김영사·1만3천원〉

▲녹색희망, 농업의 미래=임상규 순천대 교수가 2007년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미처 펼치지 못한 정책들을 책으로 풀어냈다. 식량문제, R&D정책 등 주요 정책의 과거, 현재를 점검해보고 미래 농업정책을 제안한 농정지침서다. 〈매일경제신문사·2만5천원〉

▲성대중의 처세 어록 =조선시대 문인 성대중(1732~1809)은 이덕무·박제가 등과 한 시대에 활동했으나 서얼이라는 신분의 한계에 가로막혀 자신의 역량을 활짝 꽃피우지 못하고 잊혀진 인물. 한양대 정민교수가 그의 저서 '청성잡기(靑城雜記)' 가운데 처세와 관련된 내용을 골라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푸르메·1만1천500원〉



▲자연과 함께한 1년= 한 자연주의자 가족이 보낸 풍요로운 한해살이 보고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으로 거처를 옮긴 저자 가족이 로컬 푸드(Local Food)를 서약한 후 직접 텃밭 농사를 짓고,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로만 한 해를 보내는 모험에 나선다. 〈한겨레출판·2만5천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직접거래
010-8004-6669
고흥 녹동 고속터미널옆
(봉암리조선소 확정지역)
상가부지 500평~700평
(당 50만원)
시세절반 가격
고흥 득량도(섬)
800평. 평당3만원
낚시터, 별장지역으로 최적
고흥 바닷가 전원주택지
(답) 812평
(현황도로접)
평당 1만2천원
금 1천만원

금보부동산컨설팅
☎(代)261-8949 핸 011-602-2233
(산수동 543-51(두암타운입구 삼거리)
▶싼땅매매
·동구 산수동 35m대로변 나대지720.6㎡ 매매가 6억 5,000만원(급매) 주유소, 병원부지 물류 최고적지
·광산구 장록동 생산녹지 밭 1,941㎡ 매가 2억 4,000만원
·북구 망월동(청옥동)2차선접 1종주거지역1,280㎡매매가8억
·담양군 남면 구산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6,865㎡(2차선접) 매매가 1억5,000만원(급)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임야 83,558㎡(2차선접) 농림지역 매매가 1억3,000만원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임야 18,000㎡(국도접) 관리지역 매매가 1억9,000만원
·담양군 읍 삼만리 전원주택지 1,400㎡(4차선접) 매매가 1억5,000만원
·장성 백양사 부근 4차선접 주거지역 5,107㎡ 급매 ㎡당 6만원(펜션, 상가, 식당 적합)
·광산구 지죽동 준공업지역 2,210㎡ ㎡당 8만원
▶건물매매
·북구 문흥동 대지 396㎡ 건 1,791㎡(지하1층지상6층) 세 보증금 2억 400만원에 월844만원 매가14억(융자4,000포함)
·북구 두암동 상권최고 4거리 코너 대지 1,023㎡ 건5,473㎡ 세보증금 20억 월 4,000만원 매가 60억(융자 18억포함)
·서구 농성동 대로변 대 512㎡ 건1,139㎡(지하1층 지상4층) 세 보증금 1억 9,000만원 월 650만원 매매가 9억 7,000만원(융자5억포함)
·북구 풍향동 대지 127㎡ 건 192㎡지상 3층 매매가 1억 5,000만원(소방도로 x15m 코너)
·북구 용봉동 상대쪽문앞 대지 243.8㎡ 건물 710.5㎡ 세 보증금 1억4,300만원에 월730만원 융자8억 매매가 9억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남구 주월동 대304㎡ 건496㎡ 1층 점포2~4층 원룸 및 투룸 세 보증금8,100만원 월700만원 매매가 8억 5,000만원(신축)
·동구 산수동 대176.2㎡ 건324㎡ 투룸 6세대 세 보증금 1억 2,300만원에 월120만원 매3억2,000만원(융 5,000만원포함)
·북구 용봉동 상대 뒷편 대 332㎡ 건 902㎡ 건물 2동 고시원 실 85실 월수입 약 1,580만원 매매가 8억 5,000만원(융자 3억 8,000만원 포함 급매)
▶주유소매매
·동구 산수동 대지867.7㎡ 주유소 성업중 매매가 12억(융자5억5,000만원포함)
※ 주유소 부지, 시외 주유소 매물 다량 보유 상담 환영
※ 토지, 건물, 원룸 물건 다량 보유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함 수완지구 상업용지 건축상담
첨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억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장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접 1200평 1800평
북구본촌동 850평
전용가능한급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접
생산녹지 : 2800평-평동공단인근 특가상담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축사 등)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60평
2종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핸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매매
◉투자 최적지
(전원 주택, 창고, 공장부지)
•국가 산단1차단지 인근, 5561㎡ (약 1,682평) 관리지역, 현재 과수원매매가 2억 3천만원
◉전시장 정비공장부지 -광송간 도로변
•신촌동 준주거지역 대지337평 평당 200만원
◉카센타 식당부지 -광송간 도로변
•송정동. 상업지역 대지 294㎡ (89평) 평당 300만원
◉창고 공장부지-벽진동
•대지 697㎡ (212평) 매매가 2억5천만원
◉공장 식당 창고 장례식장 -매월동 준공업지역
•35미터 도로변 2,780㎡ (약840평) 매매가 23억
◉상가부지
•봉선동, 남구청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2종 일반지역 267평 매매가 8억
◉나주 남평 관리지역 -요양원 공장 물류창고
•현재 농장, 약15,00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분할도 가능함
찾는물건
◉상가건물 ◉원룸부지 ◉모텔매매임대 ◉유흥주점 노래방 매매 임대
상가건물/고시원/모텔/원룸 매매
◉고시원매매(매매가 7억9천만원)
•전대부근, 대출3억원, 44실, 월수 900-1천만원
◉원룸매매(매매가 12억원)
•금호타이어앞, 원룸30실, 투룸6실, 안집2실, 보증금4억8천만원, 월653만원, 대출4억
◉상가건물매매(매매가 11억원)
•상공회의소앞, 지하1층, 지상4층, 대출5억, 보증금1억8천만원 월 750만원
◉매매가 16억원 -남구 봉선동 신축건물
•지하1층, 지상4층, 보증금4억, 월 680만원, 대출6억
◉모텔매매-상무지구(매매가25억)
•지하1층, 지상5층, 객실31실, 대출11억5천만원, 유흥주점유
◉모텔매매-첨단(19억5천만원)
•7층건물, 객실32실,대출12억원, 유흥주점유
◉모텔매매-첨단(매매가 26억)
•8층건물, 객실25실,대출10억원, 유흥주점유
♣기타 상업용 건물 다수 확보
모텔/주유소/가든/원룸/고시원/목욕탕/상가건물 매매나 임대
♣건물 신축부지 토지 다수 확보
공장/창고/병원/전시장/원룸/모텔/가든/대형마트/예식장/전원주택 카센터/정비공장/기타

수완지구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전문
친절 상담 성실 중개
• 상가임대
35m버스정류장 옆 월드메디컬센타 (최고요지)
-1층 복층형 평당 1,400만
35m 버스정류장 옆 송원프라자
-1층 평당 1,200만 3,4,5층 평당 270만
• 상가분양
월드메디컬센타 1층 약국 특별분양 (이비인후과 입점 확정)
• 상가건물매매
승강장 옆 5층 건물 (대지 84평 건평220평) 임대료 9억 매매가 12억 실 투자금3억(융자가능)
•수완지구 아파트상가
672세대 독점상가 임대
2층 상가임대 113,69㎡
보5천/월130만
추천업종: 각종학원, 태권도
509세대 독점상가 매매 임대
1층 상가임대 40㎡(12평)
보3천/월80~100만
2층 상가매매, 임대106,85㎡ (38,6평)매매 1억9천만
보5천/ 월50~80만
추천업종:미용실,세탁소, 분식, 각종학원
◉ 수완지구 내 최고 조건의 토지 다량 확보 ◉
수완지구 중개전문 월드 공인중개사무소
☎ 062) 959-1033, 019-608-3372